

#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가상과학박물관 <http://ruby.kisti.re.kr/~museum/>

## 사진과 함께 정확한 자료 제공



가상과학박물관에는  
각양각색의  
과학관련 사진과 자료가  
전시돼 있는데  
각종 동식물·천문우주관·  
화석·농업관·생물다양성관 등  
5가지로 세분화 돼 있다.

이 곳은 실제 박물관을 견학하듯이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전경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가상시스템이 갖춰진 과학박물관이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따라서 변하는 가상박물관에는 각양각색의 과학관련 사진과 종류가 전시돼 있다. 박물관을 이동하다가 관심있는 사진이나 전시물이 나오면 마우스로 클릭해보자. 그러면 해당 전시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사진 등을 볼 수가 있다.

### 애니메이션으로 모두 볼 수 있어

가상과학박물관은 크게 생물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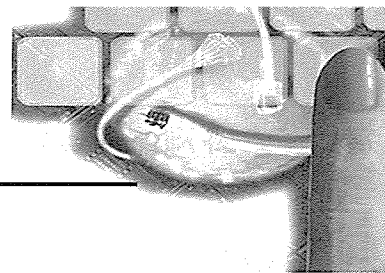
관, 패류박물관, 천문우주관, 화석박물관, 농업박물관 등 5가지 종류의 박물관으로 세분화돼서 꾸며져 있다. 생물다양성관에는 한국의 곤충, 한국 민속식물, 한국의 버섯, 한국 담수어류, 한국 연안어류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의 곤충 코너는 잎말이나방과, 팔랑나비과, 호랑나비과, 흰나비과, 부전나비과, 네발나비과, 잎벌과 등 나비를 중심으로 분류화해 구성돼 있다.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 가운데 가장 많은 종을 포함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백만종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고, 국내에는

약 1만2천종 정도가 확인돼 있는 생물이다.

한국 민속식물은 약용식물과 특산식물을 중심으로 한국 고유의 민속식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구축돼 있다. 약용식물은 본초강목에 기재된 5백50종과 동의보감식물을 완벽하게 수록해 한의학(본초학)과 약학(생약학)에 관련된 학자와 학생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한국의 자생식물 중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살아온 한국 특산식물 1백4종을 가상과학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버섯 코너에서는 세계적으로



2만5천종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1천6백여종이나 보고된 버섯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생태적 특성, 지리적 분포 등 지금까지 불충분했던 자료가 상당히 보완돼서 전시되고 있다. 버섯은 곰팡이 무리 중에서 사실체를 뚜렷이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DB구축을 통해 6백여종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기록해 한국산 버섯의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정확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이용, 생태적 특성, 현미경적 관찰, 지리적 분포 등도 함께 제시해 초등학교생으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섯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담수어류 코너에서는 우리의 하천인 민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잉어, 뱀어, 미꾸라지, 연어, 망둥이, 뱀장어 등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영어식 표현,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낚시는 표현이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용어와 참고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 연안어류에는 상어, 가오리, 돔, 쥐치, 고등어, 멸치류 등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종을 중심으로 영어식 표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어류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큼직한 사진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어류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어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

패류박물관에서는 패류이야기, 세계의 패류, 한국의 패류, 신기한 패류,

희귀한 패류에 대한 정보가 사진과 함께 제시된다. 조개껍질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나 갯벌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어떤 조개인지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곳 패류박물관에서 조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면 조개껍질만 보고서도 어떤 조개인지, 어떤 조개가 더 많은지 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각 분야의 역사가 숨쉬는 곳

각 코너마다 다양한 조개가 소개되고 있어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특이하고 재미있게 생긴 조개를 만나게 된다. 특히 신기한 패류와 희귀한 패류 코너에서는 쉽게 구경하기 어려운 독특하면서도 개성있는 조개들을 만날 수 있다.

천문우주관에는 가상태양계와 고천문실이 소개되고 있다. 가상태양계에서는 태양을 비롯해, 수성부터 명왕성까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만날 수 있다. 3차원 영상으로 태양계를 바로 볼 수 있으며, 각 행성간의 크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공전각도 등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태양계 탐험을 위해 떠난 보이저탐사선과 수시로 우주에 대한 신비를 알아내기 위해 지구에서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왕복선에 대해서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코너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영문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화석박물관에서는 지구의 역사, 지

질시대별 화석, 한국의 화석, 화석에 니메이션, 화석 관련자료, 공룡 게임 등의 코너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화석은 지질시대(현재부터 1만년 전 이상 오래된 시대)에 살던 생물의 유해와 흔적을 가리키는데 생물체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물체, 발자국이나 기어간 자국과 같은 생활흔적 뿐만 아니라, 배설물도 화석으로 취급된다. 화석은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와 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며, 자연역사의 기초 자료다.

마지막으로 농업박물관이 있는데 농가월령관, 농업생활관, 농업역사관, 계절별 농기구가 소개되고 있다. 농업박물관에서 가장 눈여겨볼만 한 코너가 농업생활관인데, 이 곳에 가면 낫과 지게와 같이 익숙한 농기구부터 화가래, 안반과 같이 낯설은 것까지 다양한 농기구들을 만날 수 있다. 나이든 중장년층에서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알맞은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각 분야에 대한 역사가 숨쉬는 곳으로 아이들에게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된다. 시간이 없어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알차고 재미있는 가상과학박물관으로 아이들과 함께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⑤7

朴應緒 (동아시아언스 기자)